

‘산벚꽃 명소’ 세랑지 단체출사 못한다

화순군, 내일부터 통제

벚꽃 개화기가 되면 전국의 사진 동호인들이 즐겨 찾는 화순 세랑지에서 단체 출사가 금지된다.

화순군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4월1일부터 세랑지 방문객을 통제하고 동호인의 단체 출사도 금지하는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세랑지는 물안개와 산벚꽃이 어우러져 사진 동호인의 단체 출사지로 유명한 곳이다.

코로나19 유행 이전에는 매년 1000명 이상의 사진 동호인들이 방문했다. 개화기인 4월은 사진 동호인뿐 아니라 일반 방문객도 급증하는 시기다.

화순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세랑지 방문객을 통제하기로 했다. 단체 출사를 막기 위해 세랑지 독에는 펜스도 설치했다.

세랑지 입구에는 방역 초소를 설치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발열증상이 있는 방문객의 출입도 막을 방침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단체 출사에 나선 사진 동호인들은 장시간 밀접해 사진 촬영을 하는 만큼 코로나



화순군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진 동호인들의 명소인 세랑지의 단체 출사를 금지한다. 사진은 세랑지에 출사 나온 사진 동호인들. <화순군 제공>

19에 취약하다”며 “세랑지를 비롯해 봄꽃 명소 관광지를 방문할 때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kwangju.co.kr

강진 쌀귀리 고추장, 흠쇼핑 매진…1억8000만원 매출 기대

국수·떡 등 다양한 가공식품 개발

강진 쌀귀리를 주원료로 만든 고추장<사진>이 흠쇼핑에서 매진을 기록하며 인기를 끌고 있다.

30일 강진군에 따르면 강진농장영농조합법인은 최근 공영 흠쇼핑에 쌀귀리가루, 고춧가루, 조청, 메주가루 등 국내산 원료를 바탕으로 소비자가 직접 담가 먹는 ‘고추장 만들기 세트’를 선보였다.

방송에서는 1시간 만에 예상 판매량인 1200세트를 훌쩍 뛰어넘은 1800세트가 판매돼 조기 마감됐다. 오는 4월 4일 재방송을 통해 500세트를 추가 판매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총 매출액은 1억8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추장 세트는 기존의 완제품과는 달리 찹쌀 발효물을 붓고 조청을 섞는 등 소비자가 직접 고추장을 만들어 먹을 수 있어 답그는 재미와 함께 안심

하고 먹을 수 있다.

또 전국 생산량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대표 주산지인 강진 쌀귀리를 사용해 인위적이지 않으면서 달콤하고 고소한 고추장 맛을 느낄 수 있다.

강진군은 쌀귀리 고추장 외에도 지난해부터 쌀귀리 국수, 선식, 떡·빵 등 다양한 식품을 개발해 쌀귀리를 활용한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승욱 강진군수는 “쌀귀리 주산지인 강진에서 생산부터 가공, 유통까지 모든 과정을 담당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며 “쌀귀리를 특화산물로 육성해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kwangju.co.kr

나주시, 농기계 보험료 80% 지원

나주시는 본격적인 영농기를 앞두고 농기계 작업 사고에 대비한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농기계 종합보험은 추락·화재·침수 등에 따른 농기계 손해, 신체 사고에 대한 대인·대물 배상을 보장한다.

나주시는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 경감과 가입률 제고를 위해 작년부터 보험료 총액의 80%를 지원하고 있다.

농가 부담은 20%이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전액 지원한다.

보장 대상 농기계는 경운기, 트랙터, 콤팩트,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드론을 포함한 항공방제기, 베일러, 농용굴삭기, 농업용 동력운반차, 농업용 로더 등 모두 12개 기종이다.

해당 농기계를 소유한 만 19세 이상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농협에서 연중 신청을 받는다.



나주시가 영농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농기계 작업 사고에 대비해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을 독려했다. <나주시 제공>

농가는 가입일로부터 1년간 농기계 1대당 1개 계약을 한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나눔 실천 온정의 손길

장성 출향인사 변동희씨, 장성장학회에 2000만원 기탁

재단법인 장성장학회(이사장 유두석 장성군수)는 장성 출신 기업가인 변동희(77·서울 거주) 씨가 고향 후배들을 위해 써달라며 장학금 2000만원을 기탁했다고 30일 밝혔다.

변동희 씨는 장성을 안평리 출신으로 고등학교 졸업 후 상경해 ㈜태가비엠을 설립, 운영했다.

변동희 씨는 “오랜만에 고향을 찾았다가 고향 후배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에 장학금을 기탁하게 됐다”며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꿈을 잃지 않고 학업에 정진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



한국광해관리공단, 화순군에 마스크 4500장 기증

한국광해관리공단은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폐광지역 내 중소·영세기업 근로자들을 위해 마스크 4500장을 화순군에 기증했다.

광해관리공단은 폐광지역 7개 시·군을 돌며 소재 중소·영세기업을 대상으로 ‘안전한 일터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며 마스크 총 1만2000장을 지원한다.

화순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영세업체를 위해 방역제품을 기증해 감사하다”며 “화순군도 중소·영세업체들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



서부발전 장흥풍력건설소, 공부방 조성 성금 1000만원 기탁

한국서부발전 장흥풍력건설소는 최근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자라는 아동들을 위해 공부방을 마련해 달라며 성금 1000만원을 장흥군에 기탁했다.

이윤 장흥풍력건설소장은 “저소득층 아동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 후원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기부에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저소득층 아이들이 가난의 대물림을 끊고 꿈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성금을 귀하게 쓰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 중부취재본부장 kykim@



재경 강진향우 여상진 대표, 신전면에 행복나눔기금 200만원

재경 신전면 향우인 여상진 ㈜에스제이텍 서울 금거래소 대표가 최근 신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행복나눔기금 200만원을 쾌척했다.

여 대표는 강진군 신전면 사초마을 출신으로 도암중학교 제31회 졸업생이다. 그는 또 재경 신전면 향우회 청년회장으로 향우들의 화합과 고향 발전을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앞서 지난 1월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고향을 위해 마스크 2만장을 기부했다.

여 대표는 “신전면 행복나눔사업 기탁금이 고향 사랑과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쓰여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마시고 전환주세요!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단(주)

상
담
전
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